

갈보리 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1 교회표어: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행6:4)
- ① 사순절: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나를 위해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체험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 ② 종려주일: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며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성찬위원회: 장로, 12시 40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 ③ 한주간 기도회: 고난 주간(4.18-22)에 오후 7:30 본당에서 있습니다.
- ④ 월례회: 2 남선교회, 3 여선교회 월례회가 친교 후에 있습니다.
- ⑤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실에서 있습니다.
- ⑥ 판매: 1남선교회에서 교회건축헌금 모금을 위해 Entertainment Book을 판매합니다. 가격은 \$65이고 한부당 \$13불이 교회 건축 헌금으로 적립됩니다. (문의: 강동호, 최장한, 박덕철집사)
- ⑦ Tax Refund: 현금확인서가 준비되었습니다.
- ⑧ 친교: 탁구대가 설치되었습니다.

4월 예배담당 안내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예배 안내	새신자 안내	주차안내	주방봉사
3일	이광희	방명아	김성희	박일영/임혜자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제연
10일	현석호	장연식	김수정	박일영/임혜자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제연
17일	고성일	원미경	김영옥	박일영/임혜자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제연
24일	박덕철	박병민	김윤숙	박일영/임혜자	노은숙/심경순/김광자	양봉옥	정희자/한상순/김제연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1. 영육으로 고통중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님의 역사로 자유함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김기섭, 박규남, 김경수)
2. 세계 곳곳에 파송된 2만여 명의 선교사들이 탈진과 자녀교육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로 선교를 포기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품고 기도하여 복음이 열방으로 선포되도록
3. 현재 탈북자들(새터민)이 2만 명이 넘게 남한에서 살고 있는데 남북간의 다른 차이를 잘 극복하고 적응하도록,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깨닫도록
4. 가정의 어려움과 직업의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됨과 직업문제가 해결되도록

갈보리교회 선교지

해외 선교지

- ▷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 ▷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국내 선교지

- ▷ City Mission 섬김
- ▷ 밀알장애우 봉사

4월 교회일지

사순절 넷째 주일:

4월 3일(주일)

사순절 다섯째 주일:

4월 10일(주일)

종려 주일 (성찬 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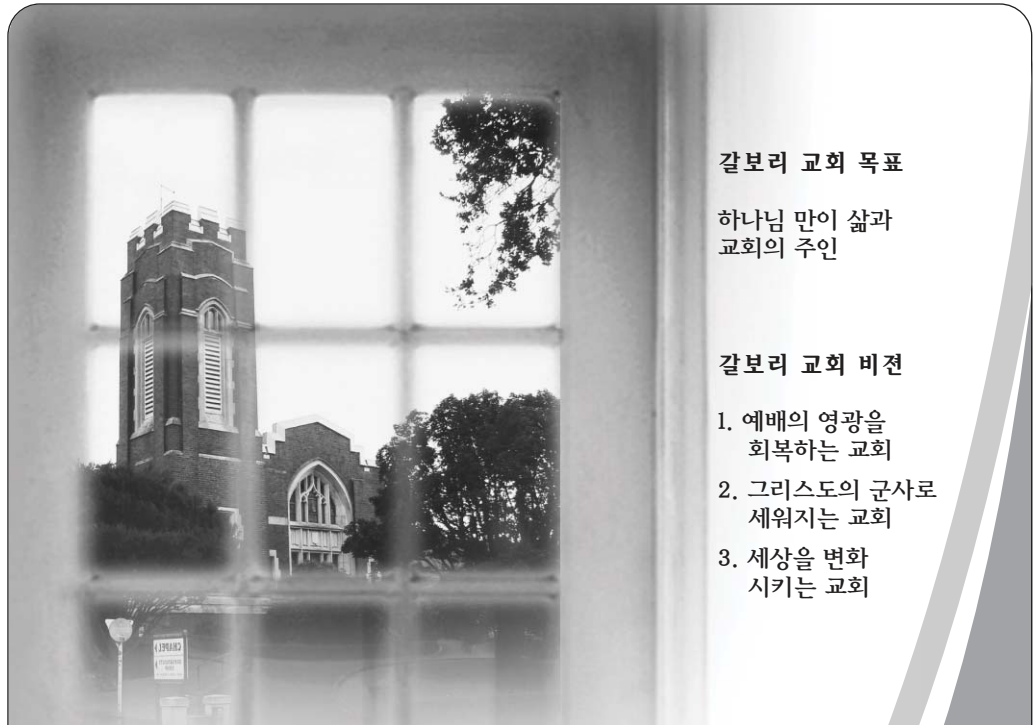
4월 17일(주일)

한주간 저녁기도회:

4월 18-22 (고난주간)

부활주일 (세례식):

4월 24일(주일)



갈보리 교회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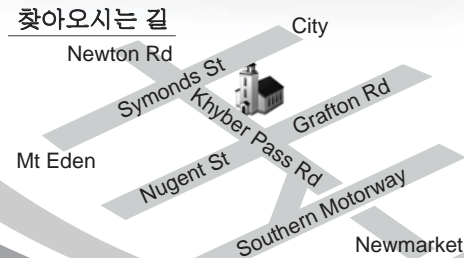
하나님 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갈보리 교회 비전

1.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
2.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는 교회
3.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11 교회표어: (사도행전 6:4)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교회”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1년 4월 10일

주보 13권 15호

www.calvary.org.nz

예배시간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PM1:00 본당	유아부	주일	PM1:00 유아실
주일2부예배	주일	PM3:00 본당	아동부	주일	PM1: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7:30 본당	중고등부	주일	PM1:00 별관
새벽기도	금요일	AM5:50 Chapel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심창진
교육전도사	: 진혜령
시무장로	: 김영길, 이광희, 정관영, 현석호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정덕수, 최재학, 유승재, 박제용
지휘	: 신경화
반주	: 송민영, 유지선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반주자
전주		
예배로 부를	하박국 2:20 요한복음 4:24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28장	다함께
*성서교독	128 사순절 (5)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151장 (구 138장)	다함께
대표기도		현석호장로
성경봉독	요한복음 11:17-30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찬양대
설교	다 끝난 인생이, 다시	이태한목사
찬송	544장 (구 343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기도문 송	다함께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기도순서안내 | 다음주 기도: 고성일 집사 4월 17일: 박덕철 집사

지난주일통계 | 1부 115명 2부 23명 학생부 22명 아동부 10명 유아부 10명 총계180명

성서교독 128: 사순절 (5)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지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희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갈보리 칼럼

성경적 세계관(World View)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두 빨간색, 파란 안경을 쓰면 당연히 파랗게 보인다. 사람들은 자기 안경을 쓰고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 한다.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를 두고 자연재해냐? 하나님의 경고냐?” 한국 장안에 화제다. 더욱이 조용기 목사님의 말을 두고 사람들은 가을에 만난 전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회자시키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기독교 비판에 열 올리고 있는 분은 문화 평론가 진중권씨다. 그의 말을 들어보면 왜 조용기 목사님의 말에 발끈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번 지진이 일본에 대한 경고라기 보다 기독교라는 것이 그의 의도인 듯하다.

세계관(world view)은 세계를 보는 눈, 즉 자기 나름대로 옳다고 믿는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떠한가?> 즉 그 인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세계관이다. 기독교세계관은 하나님의 계시(성경) 속에서 중심적 진리를 묵상함으로 얻는 체계화된 지혜를 말한다. 세상이 문화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세계관의 싸움이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세계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에 입각한 정체성을 갖는 것은 축복이다.

옴의 이야기는 차원 높은 세계관을 가지는데 도움을 주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옴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정직하고 흠없고 전한자라고 성경은 말한다. 하나님의 지혜와 도락으로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놀라운 지혜가 있어 특히 하나님에 대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특별한 지혜가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집과 가진 모든 소유물을 다 잃고 거친 태풍에 집이 무너져 자식들이 다 죽는 재난을 당한다.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고통을 당하는 옴은 이런 고백을 한다. ‘주신자도 하나님이 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재앙도 주시는 분이시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생긴다.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다면 지진을 통해 사람을 죽게 할 수 있을까? 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 방관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없는 것일까?

옴의 재난에 대해서도 그의 세 친구들이 말이 많았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안경을 쓰고 충고를 한다. 하나님은 옴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친구들 중에서는 네 말이 맞지만 그러나 너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해 더 배워야 한다.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그렇다면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어디다가 세우더냐?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같이 흘러넘칠 때 그것을 막을 자가 누구더냐? 눈 곳간에 들어가 보았느냐? 우박의 창고를 보았느냐? 등등 수없이 많은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 할 수 없었다.

옴의 고백은 ‘나는 미천하오니 할 말이 없습니다.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주께서 무소불능 하시며 무슨 일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니다.’

인간보다 생각이 깊으시고 높으신 분이 그분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신다. ‘성경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깊이 묵상할 때 성령님이 각자의 수준에 따라 깨닫게 해주신다. 좋은 안경을 착용하는 것은 축복이다.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 미신적 그 기둥이 흔들리며.... 측량할 수 없는 큰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향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옴9:5-12)

- 박영태집사

주일2부예배

오후3시		
찬양	정년찬양단	다함께
기도		장연식집사
성경봉독	마가복음 12:32-34	인도자
설교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심창진목사	
찬송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축도		심창진목사

다음주 기도: 원미경집사

수요일예배

오후7시30분		
찬양	수요찬양단	다함께
기도		김수정집사
성경봉독	요한계시록 20:11-15	다함께
설교	연극과 무대	이태한목사
찬송	179 (구 167)	다함께
광고		인도자
주기도		다함께

수요애찬 기도: 정혜숙집사
다음 수요일기도: 김영옥권사

건축헌금

지난주: \$10.00

총계: \$590,639.97